

# “자연과 하나되고 부처님 만났어요”

##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 현장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상훈)가 진행한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22일~24일 2박3일간 신록사, 용주사, 예버랜드 일대에서 열렸다.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어린이캠프에 대한 사회적 관심속에서도 168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층 성숙한 불자로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고 신나는 한마당을 펼쳤다. <편집자 주>

**22** 일 오전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속에 하나둘씩 모여든 어린이들은 흰색과 초록색의 부다피아 티셔츠를 걸고, 조계종총무원 1층 회관에서 자리를 잡고 배웅하는 부모님을 뒤로한채 2박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부다피아 캠프의 제1 목적지는 경기도 여주 신록사. 빗줄기도 잠시 멈춘 신록사 구룡루에서 어린이들이 주지 세영스님의 불교문화 역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이들은 수험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의 이름을 적어가며 불교문화에 심취했다. 비가 내리는 목야박물관을 떠나 오후 8시 용주사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충북 음성 공명산간의 청계스님과 안양 한마음선원 해나스님의 '마음이 보여요' 법문시간과 만났다. "어린이들이 어려운 각자의 마음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태울 수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성내고, 질투하고,

### 새싹불자 168명 몸과 마음 갈고 닦아 법문 듣고 예불체험...불교문화 만끽 각종 놀이·게임 즐기며 협동심 길러

“모든 자연과 문화재는 바로 우리의 스승이자 생명이입니다. 어린이들이여!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에!” 주지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향한 목야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의 특징과 우수성을 실감했다. 목야박물관 박찬수관장이 직접 나와 어린이들에게 목야박물관에서 건설중인 큰말씀의 집(대장전), 한얼음물집(개천궁), 마음의 문(사천왕문) 등 전통건축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보물 제684호로 지정된 용문사 온장대를 실측처럼 한 큰말씀의 집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온장대를 돌리는 체험을 하며, 불교문화재 속에 담겨있는 큰 가르침을 저마다 가슴속에 새겼다. 또 박찬수씨가 목불을 재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부처가 되고싶은 나무' 영화를 보며, 어린이들은 또한번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물관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과 보살상이 마냥 신기하기만

마워하는 모든 마음을 용광로에 넣어 녹입시다. 그 혼련을 이번 캠프기간동안에 하는 겁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불자로서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하는지 이번 캠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정리를 하고 장지리에 들었다. 23일 새벽 5시 일찍 잠을 깨 어린이들은 아침예불로 캠프 둘째날을 시작했다. 용주사 공양간 보살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아침을 먹고 펼쳐진 불교레크리에이션과 게임대회. “부처님 머리는 포도밭...” 재미있는 노래말과 조민정 지도교사의 재미있는 율동지도에 모두들 몸을 흔들어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어 문수와 보현으로 팀을 나눠 협동심과 체력을 겨루는 게임이 시작했다. 사람 정자에 플라후프 던져 골인하기, 호루리기소리에 맞춰 줄다리가 이어질때 마다 “문수, 이겨라!” “보현, 화이팅!” 서로 질세라 응원소리를 드높였고, 한결기 한결기 승리가 갈릴때마다 “우와와와!!! 이겼다. 또 이겼다”며 환호성을 질러대며 모두가 즐거워 했다.



◇부다피아 어린이들이 둘러싸인 목야박물관 박찬수관장이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전날 거세게 내리던 비도 멈추고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어린이들은 그렇게도 고대했던 예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 도착했다. 바다처럼 푸른 수영장 물에 온몸을 담그고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부다피아의 여름을 만끽했다. 마지막날인 24일 오전 예버랜드 페스티벌 월드에서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고, 이불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반별 장기자랑시간이 펼쳐졌다. 웃음을 뱉어내며 동매를 과시하고, 새로 배운 한복가를 목청껏 부르며, 민자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어린이들은 어느새 아기부처님처럼 미소짓고 있었다. 무더위와 모기, 자신의 인내심과 2박3일간 겨워온 어린이들은 내년에 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부다피아 여름캠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이은주 기자(ejlee@buddhapia.com)



◇'영채 영채 보현이겨라 문수이겨라' 줄다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들.



박성준 "절이 무척 아름다워"

처음 와 본 한국 절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요. 미국 시카고 웨스트부룩엘리멘터리스를 4학년인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엄마랑 동생이랑 한 번 왔어요. 엄마가 꼭 가봐야 한다고 나 혼자 캠프에 보내줬어요. 5살때 미국에 가서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내년엔 동생과 함께 부다피아캠프에 참가하고 싶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거예요. <미국 시카고 웨스트부룩엘리멘터리스 4>



쌍둥이 이성규·창규 "친구 많아 신났어요"

매년 집에서 실시하는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하다가 이번에 신문을 본 어머니가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보내주셨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아서 신나요. 특히 신록사와 목야박물관에서 불교문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과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 간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밥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참 맛있었어요. <문산 문산초등학교 6>



장보운·정현주·양수임 "내년에도 또 왔으면"

우리집(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스님이 보내주셔서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다피아 캠프에 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참가한 캠프가 처음에는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힘들었지만 차츰 적응이 됐어요. 서울말도 많이 배우구요. 캐리비안베이와 예버랜드 페스티벌 월드, 레이저쇼, 장기자랑, 신록사, 용주사, 목야박물관 모두 모두 잊지 못할거예요. 내년에도 부처님 나라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관했어요. <제주 남광초등5·화북초등4·부속초등6>



◇22일 조계종 총무원 1층 회관에서의 입재식.



◇여주 신록사 구룡루에서 주지 세영스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어린이 불자.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서 즐기는 물놀이시간.



◇이 보살님 이름은 무엇일까? 목야박물관에서 열심히 매모하며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감상했다.



◇반별장기자랑시간, 2박3일간 든든해진 양들을 선보이고 있다.



◇반별 장기자랑에서 우승한 올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본사 최정희 편집국장.

### 캠프를 마치고 나서

### 부처님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돼 이웃 돕고 부모님 말씀 잘 들겠어요

○...불교에 대해 내가 모르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년 또 내후년이 되어서도 이 부다피아 캠프에 계속 와서 불교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을 것이다. 김태권 <서울 서교초등학교6>  
○...스님 말씀도 재미있고, 캐리비안베이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다. 레이저쇼의 광 하는 소리는 무서웠지만 신기했다.  
○...하강록 <광명시 인서초등학교1>  
○...불교를 믿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전미희 <서울 대도초등학교5>  
○...작년보다 올해는 더 새롭고 재미있었다.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도 부다피아캠프를 열면 꼭 다시 한번 부처님이 된 친구들을 보고싶다. 박정은 <경기도 안양시 남초등학교4>  
○...신록사 주지 세영스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반야심경도 확실히 알게 됐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정말 재미있었다. 박선영 <서울 마포초등학교4>  
○...여러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씨랜드 사건때문에 캠프파이어를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정희정 <경기도 하남시 동부초등학교6>  
○...부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부다피아 캠프와여서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오승아 <서울 대한초등학교4>

○...캐리비안베이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미끄럼틀도 타고...생각만해도 흥있던 시간이었는데 벌써 캠프가 끝나다니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가 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과 공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인 <중평초등학교6>  
○...참 재미있고, 유익한 캠프였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캠프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부다피아 화이팅! 불교화이팅! 부처님화이팅!  
연은정 <중평초등학교6>  
○...부다피아캠프에서 이웃을 도와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공부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이보성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3>  
○... '마음이 보여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마음을 믿어라'는 청계, 해나스님의 말씀대로 이런 마음을 믿어주었다. 시간이없어 와우정사를 다 보지도 못하고 와서 아쉬웠다.  
김보경 <연촌초등학교4>  
○...목야박물관에 가서 조상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그곳 원장님이 만든 여러가지 불상을 보았다. 나무로 여러가지 불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했다. 김지승 <인양 평촌초등학교5>

후원: 조계종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신록사·목야박물관  
협찬: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불교조각원·(재)보덕학회